



컨설팅학과 이야기

2022 IC-PBL 교구 세미나 개최(지갑 만들기 세미나)

지식서비스연구소에서는 지난 2022년 3월 30일(수), 한양대학교 ERICA 경상대학 소속의 학부생 17명을 대상으로 ‘IC-PBL 교구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IC-PBL 교구 세미나는 참가자들이 지갑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면서 디자인 사고와 문제 해결 과정을 경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식서비스연구소의 강예지, 신주은 연구원이 운영 지원으로, 성혜인 박사가 강의 및 총괄 진행으로 세미나 참여자들의 디자인 씽킹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금번 세미나는 대면으로 진행하여 참여자들간, 운영진-참여자들간에 기존 비대면 세미나보다 더욱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으며 참여자들이 기존보다 더욱 몰입하여 참여 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참여자들이 고객의 숨은 성향과 선호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제품 설계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디자인 사고와 문제해결 역량이 향상 되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IC-PBL 교구 세미나를 기획, 운영을 한 지식서비스연구소의 연구원들, 그리고 세미나에 참석한 참여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경영컨설팅학과 원우 인터뷰 – 오재호 교수님, 양재용 교수님

학위 취득 후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 두 학우분을 인터뷰 했습니다.
바로 오재호 교수님과 양재용 교수님 입니다.

각각 21년 3월, 22년 3월에 임용되어 연구자이자 교육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며
정말 많은 원우분들께서 두 분의 임용 과정을 궁금해 하셨습니다.

함께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시죠!

[오재호 교수님 (2021년 졸업)]

수원과학대학교 경영학과 오재호 교수님께서 학위 과정을 진행 중인 원우분들을 위하여 인터뷰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Q1. 교수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1. 수원과학대학교 경영학과 오재호 조교수입니다. 저는 1985년 우리나라 무역투자진흥
준정부기관인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입사하여 작년 3월 KOTRA를 퇴직하고
수원과학대학교에 임용이 되었습니다. KOTRA 재직 중 2014년 9월 한양대학교 경영컨설팅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1년간 다니다 해외 발령이 나서 3년간 휴학을 하였었습니다. 이후 2018년
8월 해외 근무를 마치고 귀국 후 바로 복학하여 코스웍을 마치고 2019년 9월부터 박광호 교수님
지도하에 3학기의 연구 학기를 거쳐 2021년 2월 ‘산업구조가 신흥국 진출 성공에 미치는 영향’
제하의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입학 후 학위 수여까지는 총 6년 반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해외근무로 인한 휴학 기간을 제외할 경우 코스웍 2년과 연구학기 1년 반, 합계 3년
반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Q2. 교수로의 임용을 위해서 어떠한 준비와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2. 처음에는 학위 취득 후 후속 논문도 작성하는 등 연구 활동을 좀 더 하려고 하였었습니다만, KOTRA에서의 제 정년퇴직이 2021년 6월로 예정되어 있어서 퇴직 전 학교 임용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임용 추진을 앞당기게 된 이유는 학교의 임용 기회가 통상 가을학기보다 봄학기에 많기 때문에 경력상의 공백을 없앨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2020년 12월에 심사 등 학위 취득 관련 사항을 마무리 하자마자 하이브레인 등 사이트에서 대학교 교원 임용 정보를 수집하여 제 전공 관련 학교 여섯 군데 정도에 지원하였고, 그 중 세 군데는 면접까지 갔었는데 최종적으로 수원과학대학교 비정년트랙 산학협력 전임교원으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Q3.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A3. 제가 임용 지원을 시작한 시기가 2020년 12월로 2021년 3월 임용을 위한 출발이 다소 늦었지만 운이 좋았다고도 볼 수 있겠고, 좀 더 일찍 임용 시도를 시작하였다면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수원과학대학교에서의 강의 이외에도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 재편과 신중국 진출전략’이란 주제로 다양한 기관과 대학교 등의 교육 프로그램에 강사로 참여하고 있는데, 가치사슬이나 공급망 관련 사항은 업계나 학계의 교육 수요가 많고 최근의 핫 이슈이기 때문에 동 분야에 대한 연구와 정보 전파에도 좀 더 주력하고자 합니다.

Q4. 마지막으로 경영컨설팅학과 후배와 원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4. 제가 회사에 다니면서 학업을 병행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막상 학위를 취득하고 나니 한양대학교 경영학 박사 학위가 회사 퇴직 후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후배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지도교수님 지도를 잘 받아 학위를 끝까지 마무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와 동고동락했던 원우님들과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셨던 선배님들과는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어 우리가 서로 다시 모여 정을 나눌 기회를 더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오재호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양재용 교수님 (2019년 졸업)]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산업융합학과 양재용 교수님께서 학위 과정을 진행 중인 원우분들을 위하여 인터뷰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Q1.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1.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산업융합학부 교수 양재용입니다. 2015년 3월에 대학원 경영컨설팅학과에 입학해서 2019년 8월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졸업생입니다.

Q2. 산업체에서 계시다가 최근에 교육계로 이직을 하셨는데, 이직을 고려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학부 졸업 이후, 26년간 산업체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현대-기아차그룹, 신세계그룹, LG그룹과 같은 대기업, 매우 작은 규모의 스타트업, 그리고 비교적 탄탄한 중소기업체에서도 근무하면서 실무부터 조직 리더로서의 경험을 풍부하게 쌓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에서 후학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저의 인생 2막이 매우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늦은 나이에 학위를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품고 있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Q3. 교수로의 임용을 위해서 어떠한 준비와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3. 대학 및 학과마다 교수를 선발하는 과정과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후보자의 교육역량과 연구역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재학시절부터 이 두 가지 역량을 쌓는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연구실적 관련해서는 대학원 재학시절 매 학기마다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연구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졸업할 때 즈음 되니 학술대회에 10회 넘게 참가했더군요. 학술대회 참가 횟수가 늘어나면서 연구에 대한 깊이와 속도도 향상되었고, 그 성과로 박사학위를 받는 해에는 ‘한국회계정보학회’에서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학술대회에서 제 연구물들에 대해 여러 대학의 교수님들로부터 다양한 리뷰를 받을 수 있었던 점이 제 연구물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자연스럽게 학술지에도 다수의 논문을 게재할 수 있었습니다.

A3. 두 번째로 교육실적 관련해서는 대학원 재학시절 몇몇 대학에 특강을 나가면서 강단에서 학생들과 소통하는 경험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체에서 많은 프리젠테이션 경험을 갖고 있었지만 강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라서 가급적이면 강단에 설 기회를 많이 갖고자 했습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로는 기업에 다니면서 강의할 수 있는 포지션인 겸임교수에 임용되고자 7개의 대학교에 지원서를 넣은 끝에 한양대학교 산업융합학부에서 강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겸임교수가 된 이후로는 회사의 업무와 강의, 그리고 연구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하루 24시간, 주 7일, 그리고 1년 12개월의 시간을 매우 철저히 분배하여 사용했습니다. 주중에는 퇴근 후에 최소한 1시간씩은 책과 논문을 읽었고, 주말에는 강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기업체는 1년 중에 하반기가 상반기에 비해서 바쁘기 때문에 논문을 쓰는 일은 주로 상반기에 집중해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전임교수로 임용되기까지 매년 2편씩 논문을 게재할 수 있었습니다.

Q4. 향후 교육 및 연구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A4. 우선 임용된 첫 해인만큼 당분간 산업융합학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들의 강의와 학생들의 지도에 충실하도록 하고, 산업계와 연계한 교과목 개발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연구주제(사물인터넷 품질이슈와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 연구)를 갖고 연구 활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Q5. 마지막으로 경영컨설팅학과 후배와 원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5. 제 인생에 있어서 ‘Best Decision Making’ 중에 첫 번째가 제 아내와 결혼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컨설팅학과에 입학한 일입니다. 대학원 재학시절 재학생 원우회장을 맡으면서 졸업생과 재학생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몇 년 간 그 연결고리가 튼튼하게 이어지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명맥이 끊겨진 듯해서 안타깝습니다. 매년 5월이면 교수님들 모시고 인근 야외에 나가서 땀도 흘리고 고기도 굶고 했던 기억이 그립습니다. 이번 5월에는 그러한 모임이 다시 가능할 수 있기를, 머지않은 날에 모두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양재용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유엔 COP26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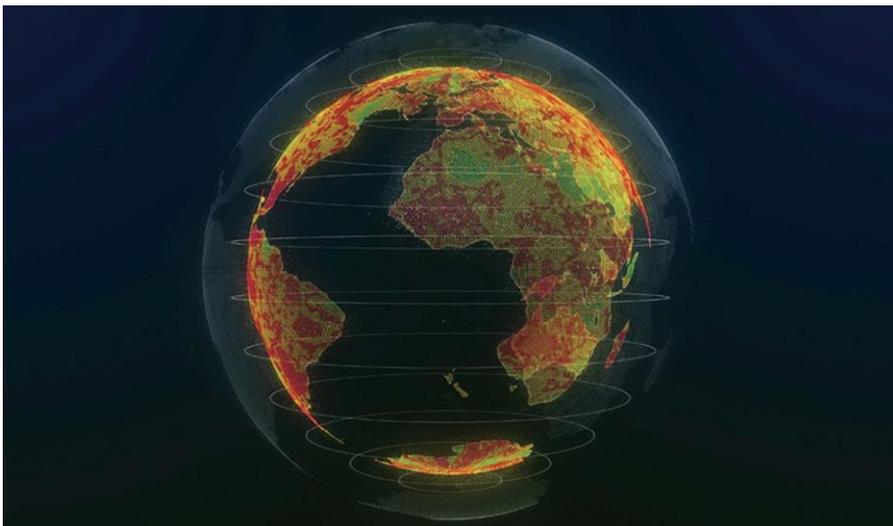


Article at a Glance

유엔 주도의 COP 체제에는 만장일치의 합정과 개도국의 불신이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한국은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 금융기관들의 연합인 지팬즈(GFANZ)의 행보를 눈여겨보는 한편 실질적인 탄소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국가 간 양자 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또한 앞으로 국제적으로 ‘탄소 춘추전국시대’가 펼쳐질 가능성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장기적으로 원전 금지에 대비하고 국제 기준에 따른 그린워싱에 주의해야겠습니다.

2021년 11월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Parties)에서 알록 샤마(Alok Sharma) 의장은 이번이 “마지막이자 최선(Last and Best)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당사국 총회(COP26)는 유엔의 고질적인 국가 및 지역 간의 마찰, 중국의 상식에 벗어나는 무리수, 유럽과 미국의 기후금융 헤게모니 충돌 등으로 이 ‘마지막이자 최선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지난 20년간 정부, 기업, 학계, 국제기구에서 일하면서 COP를 지켜본 필자가 보기에 이는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지난 20년간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COP 시작 전에 나오는 단어는 ‘결정적인, 중대한(Crucial, Imperative)’이었으나 끝난 후 반응은 늘 ‘실망스러운, 심각한 (Disappointing, Dire)’이었습니다. 심지어 탄소배출 감축의 제도화를 방지하려는 원자바오 당시 중국 총리의 전무후무한 무례와 횡방으로 엉망이 됐던 2009년 코펜하겐 COP의 결론은 ‘파멸적(Disastrous)’과 ‘종말(End)’이었습니다. COP의 근본적인 한계는 유엔의 리더십이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합니다. 기후변화는 3E(Energy, Environment, Economics) 현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화석 ‘에너지’를 대체하는 새로운 ‘경제 산업’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을 살리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이유인 경제, 금융, 산업의 이해나 변화 없이는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서 COP26의 한계를 짚고 한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알아보시다.



소 잃기 전 외양간 고쳐주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



Article at a Glance

기업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통해 얻는 가장 가치 있는 인사이트는 언제나 최신 데이터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경쟁이 치열한 시장의 경우 가능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더 빠르고 더 나은 기업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경쟁 우위 확보에 유리합니다.

실시간 데이터 분석 (Real-Time Data Analytics)이란 정보가 발생하는 즉시 (혹은 최대한 빨리) 정보를 포착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시간으로 수집 가능한 데이터의 예로는 카메라나 센서를 통한 스트리밍 데이터, 판매 거래, 웹사이트 방문자 기록, GPS 등이 해당합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실시간 데이터 분석은 기업의 의사 결정을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고, 즉각적으로 고객의 불만을 예방 및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는 많은 산업 분야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 회사는 실시간으로 거래 데이터를 분석하여 금융사기를 감지하고, 거래를 중단시킵니다. 이를 통해 사기 거래가 접수된 후 사기꾼을 추적하는데 드는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은 매일 47억 5000만 건의 게시물 중 가짜 뉴스, 욕설 등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실시간 데이터와 분석을 통해 제거합니다.

그러나 실시간 데이터는 종종 구조화 되지 않은 상태로 빠르게 이동하는 데이터를 포함하기 때문에 수집이 되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집 이후 데이터 유효성 검사 및 클리닝 등의 절차를 실시간으로 즉석에서 완료해야 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더 많은 처리 능력과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부가적인 비용 지출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기업의 경쟁 우위 선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군에서 실시간 데이터 분석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더 알아보시다.



개발 문화 육성의 첫발은 ‘기술 블로그’, 업무와 일상 보여주며 내·외부 소통을



Article at a Glance

기술 블로그는 기업의 실적과 성과, 체계와 문화, 전략과 가치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특히 기업의 조직 문화와 개발 문화가 녹아 있습니다. 기업의 개발 문화가 명확하지 않다면 기술 블로그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게시물의 형식이나 내용이 제멋대로 바뀔 수 있습니다. 기술 블로그 도입을 계획 중인 기업이라면 지향하는 개발 문화부터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기술 블로그 운영 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개발자가 글을 잘 쓸까?’ 기술 블로그 책임자의 최대 고민은 이것입니다. 개발자는 글쓰기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글을 잘 못 쓰는 게 당연합니다. 기술 블로그 기고를 요청하기 전에 개발자에게 글쓰기부터 가르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술 블로그 책임자는 개발자가 글을 잘 쓰게끔 도와주고 지원해야 합니다. ‘기술 블로그만 개설하면 개발자들이 알아서 글을 쓰겠지’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마치 회사의 비전이나 핵심 가치 등을 만들어 놓으면 조직 문화가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라는 착각과 같습니다. 개발 언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Hello World’를 출력하는 방법부터 알려주듯 기술 블로그 작성을 시작하려는 개발자에게 글쓰기 기초부터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글쓰기를 배우고 실습하면서 분량이 적은 글부터 쓰기 시작하고 또 과제로 계속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글쓰기 실력이 늘 수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하다면 기술 블로그 전문 작가의 도움을 받아 검토하고 퇴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테크니컬 라이터는 양날의 검입니다. 기술 블로그 글의 수준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나치게 높은 기준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검토 과정에서 테크니컬 라이터에게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의도한 대로 글을 쓰지 못한 개발자는 좌절감을 느낄 수 있는데 좌절감을 갖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다.



연구소 및 대학원 4월 일정

날짜	내용	비고
04월 01일(금)	1학기 외국어시험 합격자 발표	HY-in
04월 04일(월) ~ 05월 28일(토)	IC-PBL 경진대회 결과물 제출 기간	지식서비스연구소 주관 행사
04월 08일(금)	경영컨설팅학과 1학기 종합시험	경상관 305호
04월 26일(화)	1학기 종합시험 합격자 발표	HY-in
04월 27일(수)	2022년 1학기 한양대학교 대학원 fair	경상관 1층 몽랩



[End of Document]